

■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부문별 우승자 인터뷰

■ 최고령·최연소 참가자

“마음 비우고 페이스 맞춰 뛰었죠”

풀코스남 심재덕씨

“날씨와 코스가 너무 좋아 즐겁게 달렸습니다.” 풀코스 남자부 우승자인 심재덕(39·경남 거제)씨는 마라톤 마니아들 사이에선 유명인사다. 각종 국내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20회나 우승한 ‘철각’이기 때문이다. 풀코스 개인 최고 기록은 2시간30분15초. 그런데 놀랍게도 심씨의 폐활량은 정상인의 69.5%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93년 기관지 확장증 진단을 받은 심씨는 달리기가 좋다는 말에 마라톤에



입문했다. 이후 매일 아침 8km 조깅으로 체력을 다졌고, 주말이면 40km 달렸다. 덕분에 기관지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잘 달리는 비결에 대해 심씨는 “욕심부리지 않고 뛰면 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대회 첫 우승 너무 기뻐요”

풀코스여 배정임씨

“즐겁게 달리면 성적은 저절로 따라와요.” 풀코스 여자부 정상에 오른 배정임(41·경남 김해)씨는 2002년 마라톤에 첫 입문한 이후 하프코스부터 기분을 다진 베테랑 마라토너다. 하프코스에서만 20차례나 우승한 배씨는 2004년부터 풀코스와 하프코스를 섞어 뛰고 있는데, 풀코스도 4차례나 우승했다. 여성 마라토너로는 드물게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꿈의 기록인 ‘서브-3’도 3차례



나 달성했고, 풀코스 최고 기록은 2시간 51분13초다. 배씨는 고교 2학년 때 사이클 선수로 전국 체전에 출전, 금메달을 따낸 강철체력의 소유자다. ‘강한 승부욕이 우승의 원동력’이라는 배씨는 “첫 출전한 광주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회 2연패...내년 풀코스 도전”

하프코스남 김수용씨

“하프 코스는 이제 평정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풀코스 우승입니다.” 하프 코스 남자부 우승자 김수용(33·대전시 만안동)씨는 1시간10분45초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김씨는 지난 제41회 광주일보 전국마라톤대회 하프 코스 1위에 이어 2년 연속 1위의 기쁨을 만끽했다. 김씨는 “마라톤을 시작한지 4년째 되는데 풀 코스 완주가 5번 밖에 안되는 것이 좀 아쉽다”며 “오늘 날씨와 코스, 기온 등 모든 조건들이 너무 잘 맞아떨어져 기분



좋게 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프코스에서 2연패를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풀코스에 도전할 계획이다”며 “겨울 훈련을 통해 새 봄을 여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풀코스에서 좋은 기록으로 꼭 입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마라톤으로 건강 되찾았어요”

하프코스여 박성순씨

“3·1절 마라톤과는 찰떡궁합인가 봐요.” 대회 2년 연속 10km 여자부 우승자인 박성순(41·대전시 관저동)씨는 이번 대회에선 하프코스에도 도전, 첫 번째로 골인 지점을 통과했다. 박씨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적절히 섞여있는 코스가 맘에 들어 매년 출전하고 있는데, 도전할 때 마다 1등을 차지해 너무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14살과 9살 난 자녀를 둔 주부 박씨는 둘째 아이 출산 이후 우울증을 겪던 중 주변의 권유로 지난 2000년 마라톤에 입문



했다고 한다. 매일 8~10km를 달린다는 박씨는 마라톤 시작과 함께 건강을 되찾았으며, 마라톤을 즐기며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박씨는 “마라톤 시작 이후 새 삶을 찾은 듯 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풀코스 우승에 도전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구서 매일 2시간씩 훈련했죠”

10km남 원동철씨

“3·1절 마라톤 우승의 기운을 동아마라톤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대구 인터넷 마라톤 동호회인 ‘원마라톤클럽’ 소속 원동철(36·대구시 동구 신서동)씨는 10km 남자부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한 뒤 “멀리 광주까지 와서 우승하는데 기쁘다”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 2003년 마라톤을 시작해 전국 규모의 마라톤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거머쥔 아마추어 베테랑. 이번 대회를 위해 매일 두 시간 이상씩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몸을 만들었다. 원씨는 “2주 후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2007 서울국제마라톤(동아마라톤)’ 풀코스 부문 참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대회에 임했다”며 “오늘처럼만 된다면 2주 후에도 상위권 입상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한계에 도전 계속 할 거예요”

10km여 정순연씨

“제 몸과 정신력의 한계를 시험해보기 위해 마라톤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10km 여자부 정순연(34·대구 달서구)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마라톤대회를 비롯, 올 해만 벌써 3번째 이 부문에서 우승을 했다. 고등학교 시절 육상선수를 했던 정씨가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한 지는 7개월째. 육상선수로 생활했고 꾸준한 운동을 했지만 마라톤을 시작하게 계도 냈다는 정씨는 지금은 완주 후 느끼는 성취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며 우승 소감을 피력했다. 남편 이재경(38)씨와 아홉 살 성영(10)군과 함께 새벽에 광주에 온 정씨는 가족의 든든한 후원이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으며 “언제나 1등은 기분 좋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마라톤 정신으로 학업에도 최선”

5km남 김승근씨

“아버지가 응원 나오신다고 해서 어느 때보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5km 남자부 우승자 김승근(26·광주 서구)씨는 전남대 대학원 입학에 앞무고 있다. 결승선에 들어선 그는 가장 먼저 관중석에 있던 아버지 김용구(63)씨에게 승리의 주먹을 쥐어보이며 기쁨을 나눴다. 풀코스 2회와 하프코스 5번을 완주한 김씨는 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난 3개월간 뛰지 못하다가,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출



전한 5km부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땀 흘리며 뛸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하다”고 말한 김씨는 “자신을 이겨 나가려는 마라톤 정신으로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방학때 하루 30km이상 뛰었죠”

5km여 정지윤양

“드디어 엄마를 제쳤어요.” 5km 여자부 1위를 차지한 정지윤(18·군산 영광고 3년)양은 “방학 동안 부모님과 함께 하루 30km 이상 열심히 연습했던 것이 좋은 성적을 낸 이유”라며 기뻐했다. 정양은 지난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5km에서 어머니 김순남(41·제41회 대회 3위)씨에 이어 아깝게 4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 해 대회에서는 상황이 역전됐다. 딸인 정지윤양이 우승을 했고 김씨는



6위로 밀렸다. 정양은 “일하느라 바빠서 엄마가 연습을 게을리 한 탓인지 이번에는 내가 엄마를 이겼다”며 “살을 빼기 위해 시작한 마라톤이지만 이번 패봉을 수 없는 나의 일상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참가자 매년 크게 늘어...호남 대표 마라톤 자리매김”

심판총괄계시 심재용씨

“일찍 찾아온 포근한 봄날씨로 인해 많은 마라토너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 축제의 장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심판총괄계시를 맡은 심재용(48·광주시청 육상감독)광주육상연맹 전무이사는 활짝 웃었다.

심 전무는 “광주일보 마라톤 대회가 지난 70년대 마라톤계를 풍미했던 문흥주(59)선수를 키워내는 등 호남의 대표적인 마라톤으로 자리잡은 만큼 차질 없이 잘 치러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심씨는 “1만 2천여명이 함께 하는 이번 대회는 정확한 판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0.1초 차로 등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회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97년부터 광주시청 육상 감독을 맡아온 심 전무는 강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지도력으로 김재태와 박태경 등 한국육상을 대표할 수 있는 스타를 키워내 ‘명감독’으로 불리고 있다. 심 전무는 그의 지도자적 역량을 인정받아 지난 2003년 대한체육회 최우수 감독상, 2004년 시민대상과 대한육상연맹 최우수감독상, 2005년 대한체육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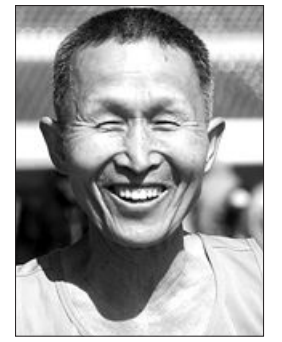


심 전무는 “호남마라톤의 대명사인 3·1절 전국마라톤 대회가 더욱 발전해 마라토너들이 가장 참가하고 싶은 명품 대회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목표기록 달성 실패...내년 재도전”

남자 73세 고재신용

“올해 목표 기록을 쫓아야 하는데 아쉽네요.” 이번 대회 최고령 완주자인 고재신(73·광주 동구 용산동)씨는 하프코스를 2시간 55분 만에 주파한 뒤 아쉽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다. 50세 때 마라톤에 입문한 고씨는 그동안 풀코스는 4회, 하프코스는 너무 많이 뛰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한다. 70세 이후로 ‘제 2의 마라톤 인생’을 시작했다는 고씨는 70대에 하프코스에서 2시30



분대를 돌파하는 게 목표다. “나이가 더 들수록 목표기록에서 멀어진다”는 고씨는 “가장 젊은 나이로 생각하는 이번 대회에서 꼭 목표 기록을 깨고 싶었는데 실패했다”면서 “내년 대회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빠랑 같이 달려서 재미있었어요”

여자 3세 이주화양

“아빠랑 같이 달려 너무 재미있었어요.” 최연소 참가자인 이주화(3)양은 아빠 이재복(35·광주시청 과학산업과)씨와 엄마 김정숙(33)씨와 함께 5km 결승선(46분)을 통과한 뒤 태극기를 흔들며 해맑게 웃었다. 이양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것은 모든 운동을 가리지 않고 즐기는 ‘운동 마니아’인 아버지와 함께 뛰는 것이 좋아서다. 아직 5km를 전부 뛸 수 없어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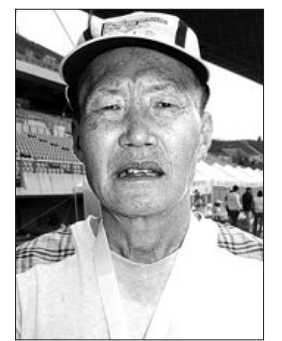


지만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을 통과해 정식으로 인정 받은 마라토너(?)가 됐다. 이제 목욕하는 “딸과 함께 풀코스에 도전하는 게 큰 소망”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희 앞두고 풀코스 123번 완주 화제

69세 운영 규용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고희(古稀)를 눈앞에 둔 운영규(69·대구)씨가 풀코스(42.195km) 도전 7년만에 개인 통산 123번째 완주에 성공해 화제다. 기록은 4시간 35분. 그런데 윤씨의 이번 완주는 일반적인 완주와는 그 성격부터 다르다. 윤씨는 지난달 25일 서울서 열린 제3회 ‘아! 고구려 역사 지키기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한 뒤 4일만에 또 다시 풀코스를 완주해 낸 것. 하지만 힘든 기색조차 없다. 윤씨는 “3·1절 대회는 코스가 너무 좋아 놓치지 않았다”면서 “욕심내지 않고 뛰다보니 어느새 골인 지점이었다”며



밝게 웃었다. 50세 때 마라톤에 입문한 윤씨는 62세 되던 해인 지난 2000년부터 풀코스에도 전진을 내밀었다. 2000년 8회, 2001년 8회, 2002년 13회, 2003년 15회, 2004년 29회, 2005년 25회, 2006년 22회 등 2주에 한번 꼴로 풀코스를 달렸다. 윤씨는 “달리면 달릴 수록 힘이 난다. 마라톤은 내 삶의 활력이자 마지막 취미”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색 참가팀 -2013년 광주 동아시아안게임 유치위



“빛고을서 아시아 큰 잔치
큰 기대 속 힘껏 뛰었죠”

“2013년 동아시아 게임은 빛고을 광주에서!” 1일 오전 8시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열린 광주월드컵경기장 본부석 앞에는 13명의 2013년 광주동아시아안게임 유치위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상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다. 이들 위원들은 2013년 동아시아 게임이 광주에서 열려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을 출전 마라토너들에게 알리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창준(62·합) 자유엔씨 대표) 위원장은 “새봄을 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2013년 동아시아 게임 광주유치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광주에

동아시아안게임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5km 일상이 유력했던 박종윤(50·우일건설 대표이사) 위원장은 등위 입상을 포기하고 고품의 나무석(72)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동남주 형태로 뛰면서 완주에 성공해 위원단 단결력을 과시하자 다른 위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2013년 동아시아안게임 유치위원(13명)은 지난해 8월 10일 현판식 및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하반기에 발표될 개최지 결정에 판관들을 쫓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